

“보르도, 지금 당장 마셔라(DBY)”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7

프랑스 보르도 샤토 디쌍 에마뉴엘 크루즈 최고경영자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샤토 디쌍(Chateau D'Issan)의 공동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에마뉴엘 크루즈(Emmanuel Cruse)가 한국을 찾았다. 작년 말 발표된 '2025 제임스 서클링 세계 100대 와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곳이다.

“보르도 와인, 묵히 말고 지금 당장 마셔라(Drink Bordeaux Young·DBY).”

프랑스 보르도에 위치한 샤토 디쌍(Chateau D'Issan)의 공동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인 에마뉴엘 크루즈(Emmanuel Cruse)가 한국을 찾았다. 작년 말 발표된 '2025 제임스 서클링 세계 100대 와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곳이다.

에마뉴엘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보르도 와인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며 “예전처럼 10년, 20년 숙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과일과 균형감으로 바로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설과 중인 말이 바로 'DBY'이다.

이번 방한은 아영FBC가 주최한 스페셜 테이스팅 행사를 계기로 성사됐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열린 '제임스 서클링 그레이트 와인즈 월드' 중에서도 한국이 유독 젊은층이 많아 인상적이었던 에마뉴엘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테이스팅 행사 초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시음장을 찾은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2022 빈티지를 따라줬으며, 샤토 디쌍에 대한 양조철학과 브랜드 스토리도 전했다.

◆ 보르도 반세기 만의 최고 2022년... 더위 이긴 테루아의 힘

2022년은 보르도 와인 전반적으로 좋았다. 아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환상적”이었다.

에마뉴엘은 “2022년은 지난 40~50년을 통틀어도 가히 최고의 빈티지라고 생각한다”며 “보르도는 다른 곳이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테루아를 가지고 있어 좋은 기후를 만난다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와인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래도 1위까지 할 줄은 에마뉴엘도 예상치 못했다. 와인 평가에서 보르도 와인이 1위에 오른 것은 7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그것도 보르도 지롱드강의 오른쪽, 우안의 와인이었다. 샤토 디쌍은 왼쪽, 좌안을 대표하는 산지 마고(Margaux)에서 와인을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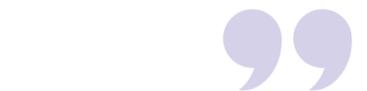
게다가 2022년은 덥고 건조했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컸던 해다. 기후변화를 극복한 것은 다행이긴 포도나무 그 스스로다.

에마뉴엘은 “2003년 처음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포도나무가 잎도 색이 바래고, 포도즙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반면 2020년 들어서는 고온에도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지장이 없었다. 쉬운 해는 아



샤토 디쌍 최고경영자인 에마뉴엘 크루즈가 지난 18일 서울 반포 세빛섬 무드서울에서 열린 '제임스 서클링 톱 100 스페셜 테이스팅' 행사에서 참석자와 소통을 하고 있다. /아영FBC

“보르도 샤토 디쌍 2022 빈티지 2025 제임스 서클링 선정 세계 1위 과일·균형 좋아 바로 즐길 수 있어 카베르네 프랑·말벡·쁘띠 베르도 추가 아로마·풍미·구조감까지 갖춰



니었지만 포도밭도, 땅도 적응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 테루아에 대한 존중·변화를 위한 도전

에마뉴엘이 샤토 디쌍의 경영을 맡아 이끈 것은 1998년부터다. 포도밭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은 물론 어린 나무에서 나온 포도는 구분해서 세컨 와인을 만드는데 쓰는 등 품질 개선에 나섰다.

배수 시스템까지 손을 안댄 곳이 없지만 최근에 가장 큰 변화라면 지난 2020년 포도밭을 더 사들여 품종을 늘

린 일이다. 카베르네 프랑과 말벡, 뿌띠 베르도 등 3개 품종이다.

그래서 탄생한 2022 빈티지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각각 65%, 30%에 카베르네 프랑 2%, 말벡 2%, 뿌띠 베르도 1%가 들어갔다. 새로운 품종들의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딱 채워지면서 와인의 복잡미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이전까지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두 품종에만 의존했지만 5가지 품종을 블렌딩하면서 아로마와 풍미, 구조감까지 완벽히 갖추게 된 예시가 2022년이였다”며 “이와 함께 균형과 우아함을 가진 마고 테루아를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몇 세기에 걸쳐 레드 와인만 만들던 곳에서 화이트 와인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전통적인 보르도 화이트가 아니라 프랑스 남부 품종인 비오니예를 비롯해 이탈리아 품종인 베르벤티노도 식재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험

적인 수준이지만 샤토 디쌍을 넘어 보르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첫 화이트 와인의 빈티지는 2024다. 생산량이 1300병에 불과해 판매보다는 와이너리 방문자들이 시음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조만간 1만병까지 늘릴 계획이다.

◆ ‘그레이트 와인’이란... 균형감이 관건

에마뉴엘이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와인, 그레이트 와인(Great Wine)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하나다. 균형감이다. 너무 간단한 답에 웃으니 그는 “정말 진지하게(Very serious) 그렇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에마뉴엘은 “이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와인을 만들고 있지만 키워드는 결국 균형감”이라며 “어느 특징을 부각시켜 잘 팔리는 훌륭한 제품(Product)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와인(Wine)은 될 수 없다. 그런 와인은 시음(Tasting)은 하겠지만 마시는(Drinking)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감을 쉽게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잔을 기울였을 때 어느새 다 마셔버린 와인이다. 아직도 와인이 남아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한 모금에 맛날지 몰라도 계속 마시기엔 너무 무겁거나 질리거나 어느 부분이 된다는 얘기다.

샤토 디쌍 역시 더운 기후로 알콜 도수는 높아졌지만 신선한 과일미에 15도 안팎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제임스 서클링은 샤토 디쌍 2022를 1위로 선정한 이후 이렇게 평했다. “와인에서 느껴지는 풍부하고 복합적인 과일향은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계속해서 마시게 만들었다. 잔이 비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와인이 어디로 갔지?’ 뿐이었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다시 스며든 파시즘... 미래학자의 경고

“지금 한국을 뜯어고치지 못하면 파시스트가 지배하는 계급사회는 불가피하다. 경제는 침체하고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미래학자 흥성국의 경고다. 그는 신간 '더 센 파시즘'에서 21세기 K-구조전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수축사회 2.0'에 이은 그의 9번째 저서다.

저자는 책에서 수축사회의 엔진을 멈추고 함께 번영하는 이른바 '플러스섬'(plus-sum)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한국형 국가 생존전략인 'K-구조전환'의 7가지 핵심 설계도를 제시했다.

우선 ▲국가 모델 수립 ▲강력한 민주

주의 재구축 ▲성장 중심 사회 ▲피지컬 AI와 제조업을 결합한 미래형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이 포함된다. 또 ▲가짜정보와의 전쟁을 통한 진실의 회복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계 개편 ▲리더와 엘리트의 각성을 통한 '사회적 자본(신뢰)'의 재충전 등을 통해 향후 2~3년의 골든타임 동안 문명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책은 'K-구조전환'이란 새로운 파시즘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21세기 들어 강력한 독재자에게 의탁하려는 파시즘적 경향이 100년 전보다 더 위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술적 엄밀함을 넘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현상을 토대로 파시즘의 징후를 읽어 내고 있다.

예로, 민주적 선거를 이용해 집권한 뒤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법률 전쟁'을 벌이고, 공포와 감시 장치로 저항을 원천 차단하는 식의 사례다. 또 가짜정보를 통해 음모론 사회를 만들고 선전·선동으로 대중의 눈을 멀게 하고, 세뇌 교육으로 정신을 파괴한다. 저자는 조직화된 집단 폭력으로 불안한 사회를 조장하고, 파시스트 간에 글로벌 연대를 추구하는 등의 전략·전술을 폭로한다.

100년 전의 파시즘과 오늘날의 파시즘



더 센 파시즘
흥성국 저음/메디치미디어

을 비교한 통찰이 눈에 띈다. 유사성에 대한 분석이다. 1930년대 독일인과 미국인, 그리고 2026년 한국인의 가상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대적 불확실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대비하고 있다.

특히, 100년 전 파시즘을 불러온 11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현재의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파시즘의 세계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던진다.

책은 “파시즘이 준동하는 시기에...해법을 ‘사회적 자본’의 재충전에서 찾고자 한다”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진 신뢰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의 미래를 모색하는 현장형 미래학자다. 1988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CEO 자리까지 올랐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와 기획재정부 위원도 지냈다. 2016년 이후에는 저술, 강연, 기고,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메트로 한줄뉴스



▲“美 협상 조율할 ‘안보 사령탑’ 줄가르드는 강경파...혁명수비대 입김 ↑”
▲“이란전쟁? 군사적전이라니까” 트럼프의 ‘단어 선택’...의회 패싱 꿈수 /사진 뉴시스

▲트럼프 “이란도 협상 간절히 원해...자국민에 살해당할까봐 말 못해”
▲“도교 길거리 점령한 성매매”...日, ‘매수자 처벌’ 규정 도입하나

▲이란대사 “한국은 비적대국...韓선박, ‘美무관’ 사전확인 후 통과 가능”
▲中왕이 “미·이란 협상에 서광”...중동 중재국들과 통화